박지원 "朴대통령 인사는 '검육관' 인사"

〈검사·육사·관료출신〉

국회, 새내각 상대 첫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

정총리 "인사, 지역안배 수치상 소홀 죄송"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북핵문제 해법 공방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했다.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과 인사 불균형, 북핵 문제 해법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야권은 국정원사건을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등의 사과를 촉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초점을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유린이라며 반격했다.

특히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정부의 잇단 '인사부실' 논란 등을 거론하며 국정 난맥상을 집중 성토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인사, 민생경제, 대북정책, 대일외교 등 그 어느 것도 성공하지 못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는 '검육관' 인사로 검사, 육사, 관료 출신들이 상명하복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만 쳐다보는 내각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 총리는 "인사 원칙이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다 보니 지역안배에서 다소 수치상의 소홀한 점이 있었다"며 "아쉬운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박 의원은 또 국정원 사건에 대해 "경찰이 '여론은 조작했어도 선거개입은 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내놨다. 이것은 '숨은 쉬었지만 공기는 마시지 않았다'는 거짓이다. 황당한 수사다"라고 비판하고 정 총리의 사과를 촉구했다.

같은 당 문병호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무너뜨린 국기문란 행위다. 꼬리가 아니라 몸통을 밝혀내 관련자를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은 "야당은 억지와 견강부회로 일관하고 있다. 매번 이런 식으로 임하다 보니까 지난 총선, 대선, 이번 재·보선에서도 참패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여야는 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 문제의 시급성에는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해법에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과거 대화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 과거에 하던 방식으로 안 된다"면서 "북에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체제가 무너지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북핵 문제가 더 이상 악화돼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고 확대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나서 북핵 문제를 논의한다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북 대화제의를 둘러싼 정부 내 혼선에 대해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질책했다.

김성찬 의원은 "정부가 손발이 안 맞는다. 참으로 준비가 안 됐다. 북에 보내는 메시지는 단어 하나하나가 조율되고 사전 정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도 "소통이 안 되니 오락가락 엇박자가 늘어난다. 대통령과 통일부장관이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을 때 총리는 '대화제의는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했다. 이것이 엇박자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부, 개성공단 해결 남북실무회담 제의

"北 거부시 중대조치"

오늘 오전까지 답변 요구

체류인원 전원 철수 가능성

정부는 25일 장기화되고 있는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갖고 "개성공단 근무자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책임있는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를 북한 당국에 공식 제의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26일 오전까지 북한이 실무회담 제의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거부시 중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하지만 북한이 우리측이 제의하는 당국간 회담마저 거부한다면 우리로선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날 당국간 회담 공식 제의에 앞서 24일 우리측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장과 북한 중앙특구개발총국간 면담을 제의했으나 북한은 이런 내용을 담은 문건 접수조차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북한이 회담을 거부할 경우 취하겠다고 경고한 '중대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개성공단 사태 장기화로 현지 체류인원의 식자재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이 정상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체류 근로자의 전원 철수 등의 조치를 정부가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우리측 근로자 176명(외국인 1명 제외)이 체류중이다. /연합뉴스

전남도의회 도정 질문

"내년까지 투자자 찾지 못하면 J프로젝트 삼포 2단계 무산 우려"

경로당 건강프로그램 부족·폐교 활용 문제 도마위에

전남도의회(의장 김재무)는 25일 제276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2014년까지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 서남해안 관광레저형기업도시(J프로젝트) 삼포지구 2단계 개발이 무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인을 위한 경로당 건강 프로그램 부족, 폐교 활용 문제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기업도시 삼포지구 2단계 무산 우려=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이정민(진보·보성) 의원은 "J프로젝트 삼포지구 2단계의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 기업도시 지정이 무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한 내에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지정이 취소된 무안과 무주의 기업도시처럼 삼포지구 2단계도 오는 2014년 10월까지는 투자자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삼포지구는 2007년 실시계획 수립 이후 F1 초기 운영법인인 카보(KAVO)의 자본잠식과 건설투자자인 SK건설의 사업 참여 거부 등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1단계인 F1 서킷과 모터클러스터는 경주장 건설과 정부 지원으로 가시화되고 있지만 73만평 부지에 주거단지가 들어서는 2단계는 투자자가 찾지 못한 상태다.

앞서 지난해 9월 중국 중견기업인 중타이건설의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최종적으로 투자금을 입금하지 못해 투자가 무산됐다.

◇전남 경로당 건강 프로그램 미약=전남도의회 곽영체(민주·강진) 의원은 전남지역 경로당의 건강 프로그램 등이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도내 22개 시·군 경로당 8545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관할 지자체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곳은 2341곳으로 27.4%에 그쳤다. 나머지 6204곳(72.6%)은 연계된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기관과의 연계도 18% 뿐이었고 노인·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초·중·고·대학교와의 연계 비율도 각각 6.3%, 4.1%, 1.9에 불과했다.

곽 의원은 "농어촌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운동강사의 직접 방문 횟수를 늘리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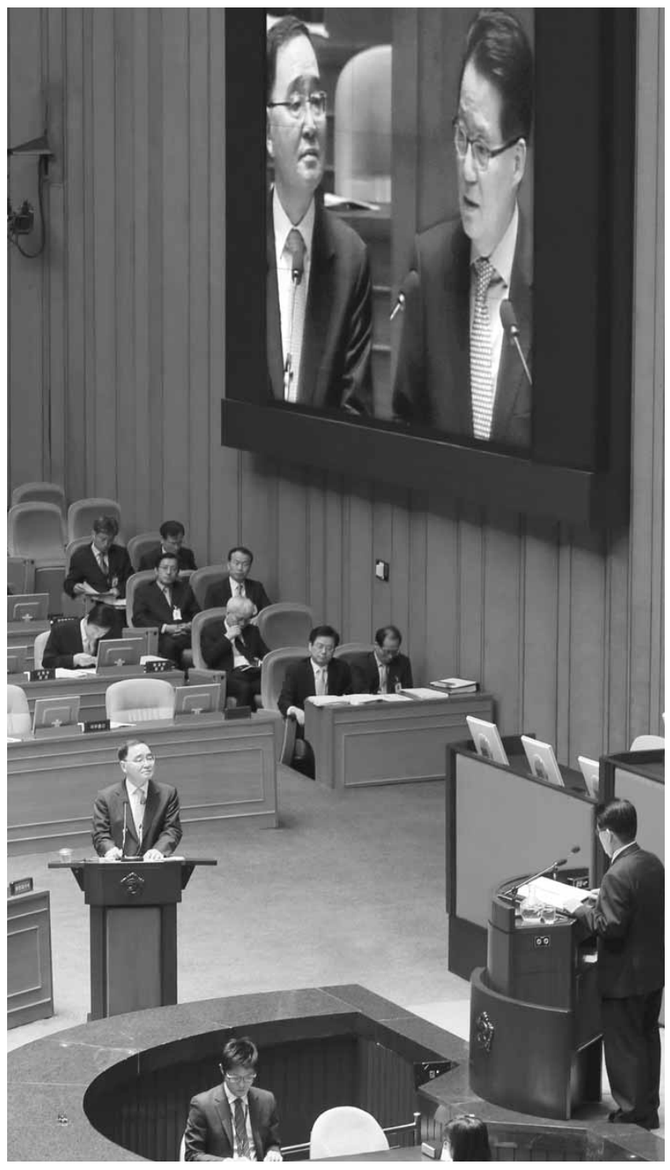
◇무분별 폐교 매각 제동=전남도의회는 전남도교육청의 무분별한 폐교 매각에 제동을 걸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4일 열린 도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중 보성 공공도서관 이설과 나주 공산고 매각 사업 등 2건을 보류했다.

교육위는 보성 공공도서관의 경우 이설 예정 부지가 보성여중 운동장인 점을 문제 삼았다. 교육위는 "학교 운동장을 없애고 도서관을 짓겠다는 것은 구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안건 심의를 중단했다.

또 지난 3월 폐교된 나주 공산고 부지 매각도 사립학교 개교를 위해 폐교된 공립학교를 판다는 것에 교육위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보류됐다. 폐교를 사들인 뒤 사립학교를 세워 학생을 모집하면 자칫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정흥원 국무총리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日대사 불러 엄중 항의

"일그러진 역사인식 강한 유감"

정부는 25일 침략 역사를 부인하고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까지 정당화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발언과 관련,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엄중 항의했다.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벳쇼 대사에게 "최근 일본 정부와 정계 인사들의 일그러진 역사 인식과 시대착오적인 언행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로서는 일본 사회가 내부적으로는 그토록 정직과 신뢰를 소중한 가치로 여기면서도 과거 침략과 식민지 지배역사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과거를 뒤로하고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로는 극도의 안타까움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역사의 거울 앞에 과거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인해 이웃나라에 끼친 많은 고통과 피해를 생각하면서 과거를 정직하게 겸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오늘의 잘못된 인식과 언행을 바로잡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벳쇼 대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전달하겠다는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가 일본 대사를 초치한 것은 아베 총리 등의 과거사 부정 발언에 대한 한국 내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광주시의회 조례 제·개정, 광역의회 중 1위

시의원 1인당 2.7건

지난해 광주시의회 조례 제·개정 실적이 전국 광역지방의회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5일 안전행정부 내고장알리미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시의회 의원들의 1인당 평균 조례 제·개정 건수가 평균 2.77건으로, 전국 광역지방의회 중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의회가 2.29건, 세종이 평균 2건 순이었으며, 전남도의회는 1.05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북도의회는 의원 43명 중 16건만 제·개정을 해 평균 0.37건으로 가장 낮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무등빌딩임대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어져있는
업무의 편의성,
신형 주차시설 완비 · 중앙 공급식
냉 · 난방시설,
쾌적한 업무
환경

·면 적 :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용 도 :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ASSET KOREA since 2005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급매매
두암타운사거리 대로변
대지 495㎡ (150평)
건물 2205㎡ (667평)

지하1층	주차장
1층	치킨호프
2층	PC방
3층	독서실
4층	학원
5층	골프존
6층	주택

매매가격 25억
대출 10억
보증금 4억3천
현금인수 10억 7천만
대출이자 공제후 월 1,000만원수익
사정상 급매(가격절충가능)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광주 동구 제-008호(동구 경제과 608-2504)
유)그랜드대부
최저이자
명품대출!
▸고액대출환영
▸사업자금대출
▸미준공건물
▸공유지분대출
※자사대출/ 자유상환/ 수수료없음 ※
최저 월1%~월3% 최고 연39%이내
광주 동구 불로동 121번지 그랜드힐 116호
062)228-0114,010-4601-8942

가 은
공인중개사
무인텔 급 매
- "담양" 무인텔
- 객 실 : 32개
- 현 성업중
- 매매가 상담후 결정
전남 지역
토지 구함
- 양어장(노지)
- 염전
- 잡종지
- 학교용지(폐교)
각 토지 매수자 대기중
※ 염전 실운영자 대기중
상무지구 랜드피아 사거리
010-8289-8549

중앙공인중개사
♣.임대업 하실분
☆.평동공단옆 준공업지역
공장건물
대지 1,800㎡(544평)
건물 1,690㎡(510평)
보증금 7천만원
월세 880만원
(매매가 12억7천만원)
융자5억원포함
월이자 230만원
※투자가치도 있고 관리인이 없고 수리비용이 없고 공실이 없고 장기 계약이 되어 있어 안정된 수입이 보장됨
♣.대지.전.답
☆.서구 세하동 2차선 도로접
주거지역 답 12,522㎡(763평)
매매가 평당150만원
(물류창고 공장 적합)
♣.전원주택지
☆.광산구 오운동97번
시내버스종점
전원주택지(전망좋음)
전2,436㎡ (737평)
매매가 평당 27만원
♣.충장로에 대형 건물 및 대형 매장 필요하신분 상담 환영 합니다.
062-374-5945
010-3162-4989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젼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